

2015년 7월 13일 오늘의 아침편지

사막에 서 있을 때
砂漠に立っている時

그 사막에서 그는
その砂漠で彼は

너무도 외로워
あまりにも寂しく

때로는 뒷걸음으로 걸었다.
時には、後ずさりした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自分の前に、刻まれた足跡を見ようと

- 오르텡스 블루의 시 《사막》(전문)에서 -
- オルタンズ・ブルーの詩〈砂漠〉(前文)より -

* 때때로 사막에
* 時には砂漠に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立っている時があります。

주변엔 검은 모래뿐 아무것도 없는
周りには、黒い砂だけで何も無い

절대고독의 외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絶対孤独の寂しい瞬間が来ます

다시금 나와서 싸움이 시작되는
再び、私との戦いが始まり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深い祈りの時間です

뒷걸음
[명사] 後じさり; 後ずさり; 尻込み; しり足.

발자국

[명사]

足跡; 踏み跡; 足取り.

歩数を数える語: …歩.

다시금

[명사] ‘다시’의強調: 今一度; またと; 再び.

2015년 7월 14일 오늘의 아침편지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足取りが軽くなった

힘이 들어간 눈에 힘을 빼니
力が入った目に、力を抜いて

뚜렷하게 보이던 편견이 사라졌다.
はっきり見えた偏見が消えた

힘이 들어간 어깨에 힘을 빼니 매일같이
力は入った肩に力を抜いて、毎日のように

나를 누르던 타인의 기대와 관심에서 가벼워질 수
私を抑えた他人の期待と関心からかるくなることが

있었다. 채워 넣기에 급급했던 삶이 비워내는
出来た。埋め合わせるのに汲々とした人生がカラになる

삶으로 바뀌니 발걸음부터 가벼워졌다.
人生が変わると、足取りから軽くなった

작은 여유와 쉼이 내 삶을
小さい余裕と、休みが私の人生を

바꿔주었다.
変えてくれた

- 신옥철의 《천만 명이 살아도 서울은 외롭다》 중에서 -
- シン・モクチョルの〈1万人が生きてもソウルは寂しい〉より -

* 천근만근
* 千斤万斤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足取りが、重い時があります

걷기도, 앉기도, 눕기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歩いても、座っても、寝ることさえもつらい時があります

힘을 빼고 잠시 숨을 돌리라는 신호입니다.
力を抜いて、しばらく息をつきなさいという信号です

마음을 비우고 발걸음을 가볍게 하라는
心を空けて、歩みを軽くしなさいという

신호입니다. 숨털 만한 작은 여유가
信号です。うぶ毛くらいの小さな余裕が

하루 일상에 생기를 줍니다.
一日の日常に生気をくれます

삶이 바뀝니다.
人生が変わります

ちからをぬく [力を抜く]

힘을 빼다.

뚜렷하다

[형용사] (분명함) はっきり[くっきり]している; 明瞭[明白]だ; ...

편견 (偏見)

[명사] 偏見; バイアス; バイヤス.

毎日のように; 毎日毎日 발음 재생 (표제어: 매일)

매일같이

누르다1

[타동사]

押さえる.

(위에서 아래로) (上から下へ) 押す.

(무거운 것으로) (重い物で) 押さえて置く.

채우다3

[타동사]

['차다'] の使役]

(보태다) 補う; 埋め合わせる.

(가득차게 하다) 満たす; 詰める.

넣다

[타동사]

入れる.

(속예) (中へ) 入らせる; 込める; 差[注]す; 差し入れる.

(돈을) (金を) 預ける; 納める.

급급하다 (汲汲—)

[형용사] 汲汲としている; あくせくしている.

비우다

[타동사]

['비다'] の使役] 空ける.

(中味を) 空にする.

(家を) 空ける; 留守にする; (席を) 離れる.

やすみ [休み] 발음 재생 매우중요

1. 쉼; 휴식. 2. 쉬는 시간. 3. 휴일; 휴가.

천근만근とても重たい

만근 (萬斤)

[명사] 万斤; 非常に重い目方.

숨(을) 돌리다

[성구·관용구]

息をつく.

息切れを鎮める.

息を抜く; 息抜きをする.

솜털

[명사] 綿毛; うぶげ; にこ毛.

2015년 7월 15일 오늘의 아침편지

젊음은 가고 청춘은 온다
若さは行って、青春は来る

그러니까
だから

젊음과 청춘은 다른 거야.
若さと青春は違うのだ

시간이 지나면 더 확실해져.
時間が過ぎれば、さらに確実になる

젊음은 꽃병에 들어 있는 꽃이어서
若さは、花瓶に入っている花で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지만
時間が過ぎれば枯れてしまうが

청춘은 시간이 지나도 가슴에 남는
青春は時間が過ぎても、胸に残る

푸른 봄이거든.
青い春であるのだ

이제부터
これから

청춘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 봐.
青春で行く道を模索してみて

너의 젊음은 아직 많이 남았잖아.
あなたの青春は、ひたすらたくさん残っているじゃない

- 오선화의 《야매상담》 중에서 -
- オ・ソナの〈野梅相談〉より -

* 나이들면 젊음은 사라집니다.
* 歳をとれば若さは失われます

몸은 늙고 흰머리에 주름은 깊어갑니다.
体は老い、白髪にしわは深くなります

그러나 청춘은 사라지거나 늙지 않습니다.
しかし、青春はなくなったり老いたりしません

젊은 꿈, 젊은 생각, 젊은 사랑에 시간을 맡기면
若い夢、若い思考、若い愛に時間を任せれば

나이가 들수록 더욱 푸르른 청년의 기백,
歳をとるほど、さらに青い青春の気概

만년청춘으로 살 수 있습니다.
万年青春で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

젊음은 가고 청춘은 옵니다.
若さは行って、青春は来ます

흰머리
[명사] 白髮; はくはつ. (=백발)
주름
[명사]
皺.
衣服のひだ; 折り目.
[식물] キノコのかさの裏のひだ.

젊음
[명사] 若さ.
야매 (野梅)
[명사] 野梅; 野生の梅(の木). (=들매화)
기백 (氣魄)
[명사] 氣迫; 氣概.

2015년 7월 16일 오늘의 아침편지

괜찮은 남자들은 어디로 가고...
いい男はどこへ行って...

괜찮은 남자들은
いい男は

누가 다 훔쳐갔을까.
誰が皆盗んだのか

길을 걷다 보면 잘생긴 남자도 많고,
道を歩いてみれば、カッコいい男も多く

키 크고 귀여운 남자도 많은데 왜 내가 만나는
背が高く、かわいい男も多いが、なぜ私が会う

사람들은 하나같이 별로일까? 내꺼 같은데
人は、一様にさほどでもないのか? 私のもの

아니었으면 싶은 남자 말고, 무조건 내꺼
でなかったらと思う男ではなく、無条件に私のもの

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にしたい男に会いたい!

어디 가야 그런 남자를 만날 수
どこに行けばそんな男に会うことができる

있는 거야?
のか?

- 김재용의 《엄마, 나 결혼해도 괜찮을까》 중에서 -
- キム・ジェヨンの〈母さん、私結婚してもよいか〉より -

* '어린 왕자' 를 기억하시나요?
* '星の王子さま' をご存知ですか?

"네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에,
"お前がバラにつかった時間のために

네 장미가 그토록 중요하게 된 거야."
お前のバラがそれほど重要になったのだ"

내가 물을 준 장미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私が水を与えたバラが一番美しく大切です

내가 시간과 사랑과 마음을 준 남자가
私が時間と愛と心を与えた男が

가장 소중하고 괜찮은 남자입니다.
一番大切にいい男です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는
世の中に一番いい男は

내 안에 있습니다.
私の中にいます

훔치다

[타동사]

(훔다) ふく; ぬぐう.

(금품을) 盗む; くすねる; かすめる; 失敬する[속어].

(더듬어 찾다) 手探りする.

하나같이

[부사] 一様に.

별로 (別—)

[부사] (打ち消しの語を伴って) 別に; さほど; たいして; さして;...

星の王子さま 웹수집웹수집 도움말

[문학] 어린 왕자.

장미 (薔薇)

[명사] バラ(薔薇); 薔薇(*한문투의 말씨); ローズ.

2015년 7월 17일 오늘의 아침편지

내 나이 35세
私の歳は35歳

내 나이 만 35세.
私の歳は満35歳

그동안 나는 무엇을 해왔는가?
その間私話をしてきたか?

아무것도 없었다. 황금 같은 나의 귀한
何もなかった。金のような私の貴重な

젊은 나날들을 헛되고 헛된 욕망 때문에
若い年齢を、無駄で虚しい欲望のため

어이없이 모두 탕진시켜버리고 말았다.
あっけなくすべてつぶれてしまった

덧없이 허송해 버린 세월이 아까워서
虚しく無駄に過ごしてしまった年月が惜しくて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泣かないはずがなかった

- 이재철의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 중에서 -
- イ・ジェ Chol의〈信頼の文章、私の告白〉より -

* 35세.
* 35歳

가장 바쁘고 활력이 넘치는 황금 나이입니다.
一番忙しく、活力が溢れる黄金の年齢です

그러나 번민과 고통도 큰 위기의 나이입니다.
しかし苦悩と苦痛も大きな危機の年齢です

한 순간 번쩍 하면 엄청난 도약도 가능하지만
一瞬輝けば、とてつもない跳躍も可能だが

한 순간 빠듯하면 날개 없이 추락합니다.
一瞬うまくいかなければ、翼がなく墜落します

가장 무서운 것이 허송세월입니다.
一番怖いことが、無駄な年月です

시간을 촌음처럼 잘 사용해야
時間を寸陰のように、ちゃんと使って

훗날 후회가 없습니다.
後日後悔がありません

헛되다
[형용사]

かいがない; むだだ; むなしい.
でたらめで信じられない.

어이없이

[부사] あきれて; あっけなく; どうしようもなく.

탕진 (蕩盡)

[명사] 蕩尽; 身代をはたく[潰す]こと.

덧없이

[부사]

跡形もなく.

(時の流れが)速く; 矢のように.

はかなく; むなしく.

허송 (虛送)

[명사] (時を)むなしく過ごすこと.

아깝다

[형용사]

惜しい.

もったいない; 手放したくない.

もったいない; 遺憾だ.

번민 (煩悶)

[명사] 煩悶; 悩み; 心の煩い; もだえること.

빠끗

[부사]

(끼워 맞출 것이 어긋나서) (あてはめるべき物が)食い違ってよ...

(일이 어긋나는)間違って物事がうまく行かないさま; 手(...

촌음 (寸陰)

[명사] 寸陰; 寸時. (=촌각)

2015년 7월 18일 아침편지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이하림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イ・ハリム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사랑에는 새드엔드(Sad End)가 없다
愛には、サッドエンド(Sad End)がない

헤밍웨이는 말했습니다.
ヘミングウェイは言いました

“사랑에는 해피엔드가 없다.”
“愛にはハッピーエンドがない”

나는 이 말에 반박하고 싶습니다.
私はこの言葉に、反駁したい

사랑에는 해피엔드가 없는 것이 아니라
愛には、ハッピーエンドがないのではなく

새드엔드가 없으니까요. 사랑의 기억은
サッドエンドがないからです。愛の記憶は

웃었던 울었던 인생을 더
笑っても、泣いても人生をさらに

충만하게 해 주니까요.
充満させてくれるからです

- 송정연의 《당신이 좋아진 날》중에서 -
- ソン・ジョンヨンの〈あなたが好きになった日〉より -

* 사랑 때문에 울고 웃었던 기억들이
* 愛のために、泣いて笑った記憶が

단 하나도 없다면, 그 삶이 얼마나 짝박할까요.
ただ一つもないなら、その人生はどれだけ寂しいでしょうか

어느 식구처럼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며
ある句のように'今知っていることを、その時も知っていたら'と

아쉬워 할 때도 있지만, 그 아쉬움조차 떠올릴 때마다
惜しむときもあるが、その惜しみさえ、思い浮かべるごとに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한 번 뿐인 인생,
口もとに微笑みます。1度しかない人生

더 충만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さらに充満した人生のために、今日も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たくさん愛しました。

20150718.txt

반박 (反駁)

[명사] 反駁.

じゅうまん [充満] 발음 재생

충만; 가득함.

팍팍하다

[형용사]

(食べ物に水けがなくてのどに詰まるほど) ぱさぱさしている.

へとへとに疲れてもう歩けないほど足が重い. [큰말] 퍽퍽...